

# FAANG을 넘어 BBIG로

## - 新성장을 담는 투자법 -

2020.11

### CONTENTS

---

#### I. 왜 BBIG에 주목하는가?

1. 저성장·초저금리·경제 패러다임 변화
2. 국내투자자의 투자현황 및 개선과제

---

#### II. BBIG 투자의 3가지 이점

1. 종합지수가 아닌 섹터에 투자
2. 자산배분 관점으로 분산
3. 글로벌 메가트렌드 편승

---

#### III. 결론

박영호 연구위원

02-3774-1743 | [youngho.park@miraeasset.com](mailto:youngho.park@miraeasset.com)

## < 요약 >

- 지금은 저성장·초저금리의 고착화와 고령화, 기술혁신 등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자산운용 및 투자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시대임.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확산은 메가트렌드의 하나인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와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고, 저성장 및 저금리 추세도 강화하고 있음.
- 국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매매 혹은 몇몇 해외 성장주 집중투자를 통해 구조적 환경 변화에 대응 중인데, 앞으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균형 관점에서 안정적인 방식의 장기투자 비중을 늘려가야 함.
- 1) 종합지수(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섹터에 투자 2) 자산배분 관점에서 보다 넓은 분산, 3) 글로벌 메가트렌드(고령화, 그린, 4차 산업혁명) 편승 등 3가지 관점에서 향후 투자전략을 고민할 때이며, BBIG 투자는 이런 전략에 부합하는 장기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음.

\* BBIG는 대표지수(K-뉴딜) 및 4개 개별 섹터지수(2차전지/바이오/인터넷/게임)를 개별 투자성향에 맞춰 달리한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ETF로 장기·분산투자할 수 있음.

### ① 종합지수가 아닌 섹터에 투자

- 향후 저성장을 맞게 되는 우리나라는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장기 우상향 트렌드를 추종하는 섹터에 투자해야 자산 증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BBIG는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분야의 기업들로 이루어진 섹터 지수임.

### ② 자산배분 관점 분산투자

- 하이테크(High Tech)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FAANG 등 소수 성장주에 집중투자보다는 다양한 성장 섹터 및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BBIG 지수는 바이오, 그린, IT, 게임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기업들로 구성돼, 성장에 투자하면서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 ③ 글로벌 메가트렌드 편승

- 고령화, 그린,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 추종자산은 추세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BBIG는 초고령사회 및 기술혁명 트렌드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돼,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편승하는 투자에 부합됨.

- FAANG을 넘어 BBIG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메가트렌드로부터의 성장을 취하고, 자산의 장기성장을 도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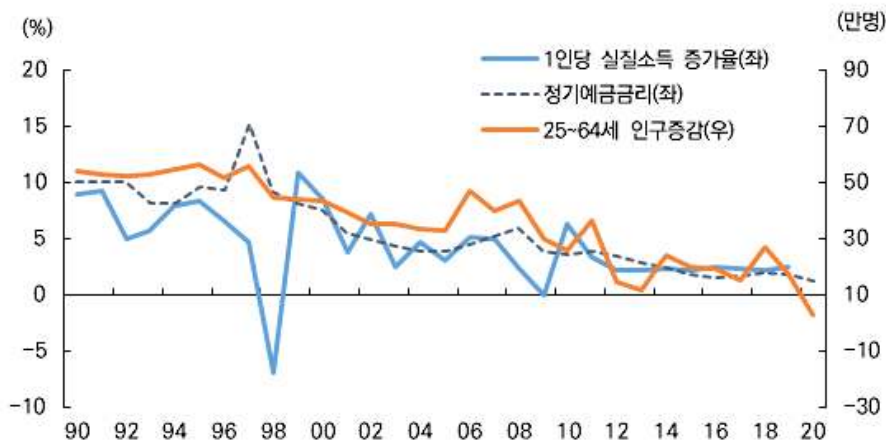
## I. 왜 BBIG에 주목하는가?

### 1. 저성장·초저금리·경제 패러다임 변화

◎ [국내 환경] 인구 및 개인소득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리 하락세도 이어져 경제사회적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

-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경제활동 주축 인구인 25~64세 연령층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총수요/공급 측면의 활력 저하로 인해 개인소득 증가세도 둔화 중임.
- 경제성장기여도가 높았던 기존 대표 제조업종들을 중심으로 2010년대 이후 빠른 속도의 산업 성숙화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고 있음.
- 구조적 저성장세 가운데 산업생산 및 투자수요 감소로 인해 시중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정기예금금리 등이 1%를 하회하는 추세로 진입)임.

<도표 1> 제로 모멘텀에 수렴 중인 국내 금리, 소득, 인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인구는 2019년 추계 자료

◎ [글로벌 환경] 고령화, 기술혁신 등의 메가트렌드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은 그 핵심 추세들을 촉진하였음.

- 고령화, 기술혁신 등의 메가트렌드는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효율 혁명, 전통 소비 및 산업투자 위축, 항시적 통화완화, 금리 하락과 같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조적 변화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
  - 특히 미국의 금리 대세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로금리에 빠르게 수렴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해 이미 제로금리 상황인 선진국 전반 채권의 투자매력과 자산배분 상의 안전판 역할은 중기적으로 약해질 전망이다. 선진국 채권을 대신해 금융투자의 변동성을 제어할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으로의 새로운 배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임.

<도표 2> 미국 주식 및 채권 지수와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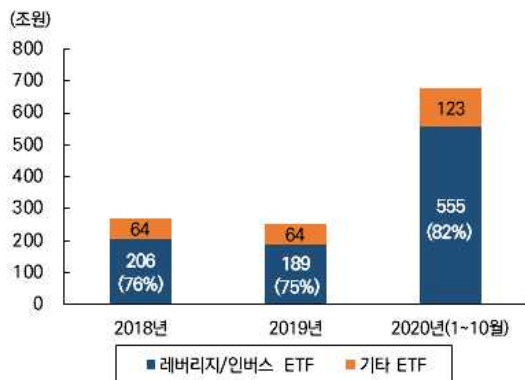
## 2. 국내투자자의 투자현황 및 개선과제

◎ 레버리지 매매나 몇몇 해외 성장주의 집중투자는 포트폴리오의 균형 관점에서 그 비중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방식의 장기투자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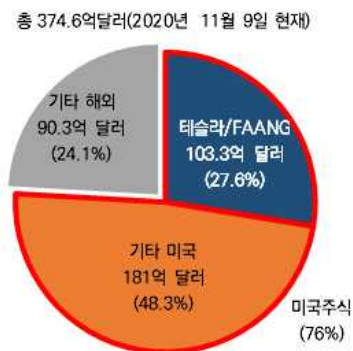
— 올해 국내투자자들은 국내외 직접투자 확대 과정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매매 또는 미국 대표 성장주 집중투자 경향이 두드러졌음. 최근 투자성도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지만 향후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분산·개선하고, 안정적인 방식의 장기투자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음.

<도표 3> 국내투자자의 국내외 주요 직접투자 현황

<개인투자자의 ETF별 매매대금 및 비중>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별 보유 비중>



자료: KRX(한국거래소) Marketdata, 한국예탁결제원, 주: ETF는 국내 및 해외 상품 전체

## II. BBIG 투자의 3가지 이점

- 1) 종합지수(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섹터에 투자 2) 자산배분 관점에서 보다 넓은 분산, 3) 글로벌 메가트렌드(고령화, 그린, 4차 산업혁명) 편승 등 3가지 관점에서 향후 투자전략을 고민할 시기이며, BBIG 투자는 이런 전략에 부합하는 장기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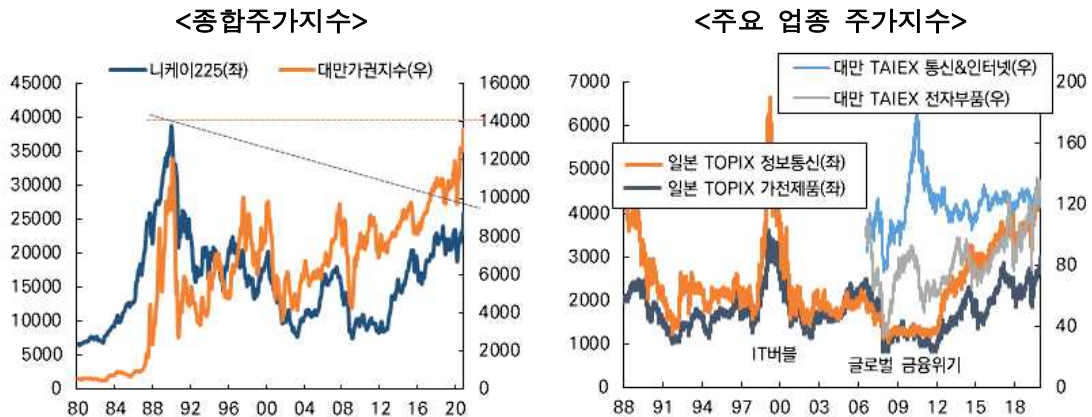
\* BBIG는 대표지수(K-뉴딜)와 4개의 개별 섹터지수(2차전지/바이오/인터넷/게임)로 구성돼 있음. 이를 개별 투자성향에 맞춰 달린 비중으로 투자하고, ETF로 장기·분산투자할 수 있음.

### 1. 종합지수가 아닌 섹터에 투자

- 유럽 및 아시아권의 주요 제조업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 고성장 단계에서 성숙화 단계로 이행했으며, 이를 반영한 국가별 종합주가지수는 큰 폭의 상승세 이후 장기간 변동성 구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수요시장 침체와 같은 구조적인 추세로 인해 주요 제조업 국가들에서 디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정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음.
- 또한 이들 국가의 주요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사이클 변동과 기술혁명의 영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부침을 겪었으며, 업종지수의 장기흐름에서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였음.
- 영국, 이태리 등 서구 선진국에서 일본, 대만 등 후발 제조업 강국에 이르기까지 경제 고성장 마감 후 종합주가지수의 장기성과는 대체로 좋지 못했음.

<도표 4> 일본과 대만의 주요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후발 제조업 강국 중 하나인 한국도 산업 성숙화와 저성장 구도에 봉착해, 종합 주가지수 및 경기민감 제조업종 지수의 최근 10여년간 성과가 좋지 못한 편임.

- 철강, 운수장비(자동차/조선)과 같은 경기민감 제조업은 2000년대 초중반 글로벌 경기 호황 및 2000년대 후반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시장 고성장 국면에서 강한 실적 성장과 업종지수 상승세를 시현했다가 이후 글로벌 주요권역의 경기싸이클 부진 반전과 공급과잉 영향으로 인해 실적과 주가 모두 후퇴하였음.

-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는 대표 제조업들의 성장 둔화가 시작된 2010년대 이후로 추세적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편임.

● 반면 한국의 IT 및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화학) 분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경쟁력과 시장수요를 확보해 성장 섹터로 부상하면서 업종 주가가 종합지수와 차별화된 추세적 상승세를 시현하였음.

● 이는 종합지수 즉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 아닌 장기 우상향 트렌드를 추종하는 섹터에 초점을 두어 투자해야 자산의 성공적인 증식이 가능함을 보여줌.

<도표 5> 한국 주요 업종 주가지수별 장기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2. 자산배분 관점으로 분산

● 미국 빅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지표의 장기성장 전망이 여전히 밝은 편임. 다만 주가가 고성장 기대를 선반영하여 장기간 가파르게 올랐음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함.



-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과 같은 미국 빅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新성장을 주도했으며, 기업가치와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음.

• FAANG의 주가지수(Aggregate Index)는 2020년 8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최근 12년간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NASDAQ)지수 성과를 크게 뛰어넘는 2,078%(약 22배)의 상승률을 시현

<도표 6> FAANG의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FAANG의 주가는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패턴 및 디지털·온라인 비즈니스 확산에 힘입어 최근 7개월간 미래 성장기대를 선반영한 급상승을 시현했는데, 이 같은 이벤트효과가 약화되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성장산업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지닌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슈가 주기적으로 부각되었음. 종전 미국 테크(Tech) 섹터에서의 반독점 규제는 성장주도 패러다임의 전환 및 확대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알파벳과 구글, 애플 등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반독점 제소 및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한 FAANG의 위상을 다소 누르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주가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 FAANG이 보유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점력은 대부분 경쟁우위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아 구축했음을 감안할 때 반독점 규제가 이들의 역성장을 초래할 위험성은 미미함.

- 다만 한 때 나스닥 지수 대표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가 반독점 규제 이슈 부각과 IT버블 붕괴(2000년대 초반)로 하락 반전했고 이는 FAANG 중심의 장기성장 주도로 새롭게 재편됐듯이, 현재의 반독점 규제도 새로운 성장주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나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대표주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02년 최고치인 13%에서 2015년 4%까지 하락한 반면, 아마존/애플/구글 시가총액의 나스닥 지수 비중은 2004년 1.8%에서 2020년중 최고치인 27%까지 확대됨.

<도표 7> 미국 대표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 변화



자료: Bloomberg

- 장기성장 트렌드를 추종하는 하이테크(High Tech)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FAANG 등의 소수 성장주에 집중투자보다는 다양한 성장 섹터 및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BBIG 지수는 바이오, 그린, IT, 게임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기업들로 구성돼, 성장에 투자하면서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3. 글로벌 메가트렌드 편승

-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향후 수십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제사회적 대세 변화이며, '고령화에 의한 수요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급혁명'을 양측으로 하고 '그린(친환경)'이 그 바탕을 이룰 것으로 보임.
  -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은퇴자 및 고령자 중심으로의 인구구성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의식주, 내구소비재 등에서 의료서비스 등 중심으로 소비와 수요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초래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체계를 통한 초연결사회 구현



을 목표로 함. 또한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과 공급혁명을 유도하고 있음.

- 대규모 유형자산 투자를 수반하는 기존 제조업 체계를 디지털화에 의해 효율화함은 물론 온라인·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 쇼핑,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기존 도로, 교량, 발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구축될 미래 사회에서는 5G 기반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위한 통신설비(셀타워) 및 데이터센터 등이 새로운 필수 인프라로서 부각될 전망이다.

—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성장시키는 특징을 지님.

- 고령화가 바이오테크 기술을 이용한 첨단의료 비즈니스의 주된 동기가 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 발전은 수명연장을 통해 고령화를 진전시키고 있음.

— 그린혁명은 그동안 광범위한 화석에너지 사용에 의한 지구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인간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목적에서 출발한 글로벌 트렌드임.

- 그린혁명의 이 같은 과제에 따라, 에너지소비 감축과 같은 일차적 개선에서 더 나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대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게 됨. 구체적으로 1)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시티 및 2)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운송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린혁명은 또한 2차전지, 첨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무선충전 등 4차 산업혁명에서의 IT 관련 신기술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지님.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추종하는 자산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추세적인 성장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양호한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줌.**

◎ **BBIG는 초고령사회와 기술혁명 및 그린혁명 트렌드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돼,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편승하는 투자에 부합됨.**

— **[바이오]** 바이오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 급증과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에 힘입어 장기성장할 가능성이 큰 섹터임. 구체적으로 원격재택의료, 인공지능 활용 정밀진단, 스마트 의료기관 구축 등 관련하여 우수한 IT기술 기반 및 비즈니스 확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음.

— **[배터리]** 배터리(2차전지)는 그린 메가트렌드의 일환으로 유망해진 전기차 시장의 장기 성장세에 직결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임. 섹터를 구성하는 한국기업들은 선도적 기술, 글로벌 시장 지배력(시장점유율 1위), 대규모 수주(미래 매출액) 등을 확보하였음.

— **[인터넷/게임]** 인터넷과 게임은 디지털 기반 혁신 비즈니스의 다각화와 플랫폼 비즈니스

스의 강화에 추종하며, 가상현실(VR) 및 IT 기술이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야에 혁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고령인구에 대응한 新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로서 전반적인 가치가 확장될 잠재력도 적지 않은 편임.

<도표 8>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추종하는 BBIG의 구성섹터

	비즈니스 및 시장수요	기업군 경쟁력
<b>B배터리 (2차전지)</b>	친환경 교통·운송체계 → 전기차 → 2차전지 및 차량용 배터리	·핵심 기술 선도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대규모 수주 확보
<b>B바이오</b>	바이오/헬스케어 지출, 공공의료 시스템 → 원격재택의료, 인공지능(A.I.) 정밀진단, 스마트 의료기관	·IT 반도체 기술 기반 국제경쟁력 확보 ·바이오테크 경쟁력 제고
<b>I인터넷</b>	플랫폼 사업 및 커뮤니케이션,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온라인·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IT 반도체 기술 기반 국제경쟁력 확보
<b>G게임</b>	가상현실 기술 적용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령인구 新수요 부각	·문화 콘텐츠,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 BBIG는 IT 및 전기전자 업종 등 메가트렌드를 추종 중인 기존 업종에서 더 선별된 성장유망 섹터로서 Next 20년 장기투자의 유효한 대안이 됨.

<도표 9> BBIG 지수 성과의 현재 위치



자료: 한국거래소

### III. 결론

-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으로 인해 고령화, 그린, 기술혁신 관련 메가트렌드가 더 강력하게 형성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수 종목으로부터 단기적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보다는 메가트렌드에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1) 종합지수가 아닌 섹터에 투자, 2) 자산배분 관점으로 분산, 3) 글로벌 메가트렌드(고령화, 그린, 4차 산업혁명) 편승 등 3가지 프레임으로 투자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BBIG 지수 및 ETF에 장기·분산투자하는 것이 그 해법 중 하나가 됨.



- FAANG을 넘어 BBIG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 메가트렌드로부터의 성장을 취하여 자산의 장기성장을 이룰 수 있음.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투자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미래에셋투자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투자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http://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투자연금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